

사회

# 광주시교육청 특채 교사 바뀌치기

## 사립고교 전교조 소속 합격시키려 '들러리' 교사 내세워 경쟁률 조정 직원 실수 합격자 바뀌자 서류 조작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을 공립으로 특채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락자를 바꿔치기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반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연장감사를 벌였으며 위법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복수의 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사립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립

특채 공고를 냈으며 그결과 지난 3월 1일자로 대광여고 5명, 조대부중 1명 등 6명이 특채됐다. 이들 중 대광여고 소속 교사 5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타 학교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시교육청은 특채 공고를 내면서 단서조항으로 '사학법인이 응모할 교사를 추천할 때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때문에 대부분 사립교사들은 소속 재단측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응시 기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

채에 응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이 특정학교 전교조 교사들을 미리 점찍어 특채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소문에 따라 응모자가 소수에 그칠것을 우려, 대광여고측에 문건을 보내 전교조 교사 5명 외에 이른바 '들러리' 응모를 해줄것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소속재단 산하 교사들 10명이 시험을 치렀다.

공채는 지난 2월22일 서류·수업실기·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은 장학사와 교장 등 내부 위원과 학부부 등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월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점검결과 특정과목에서 대광여고측이 경쟁률을 맞추기 위해 내세운 교사가 합격하고 정작 시교육청이 내정해 놓은 특정 교사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인사 담당 최고 책임자가 해

당 학교측에 최종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최근 연장감사를 벌인 교과부 등은 이번 사안에서 시 교육청과 심사위원간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감사에서 특채를 담당했던 인사책임자 등이 최종 합격자를 바꾸기 위해 심사위원을 다시 불러 평가표를 재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가표 조작은 해당 업무 담당자의 컴퓨터에 고소란히 남아 교과부 감사반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채는 해당학교의 과외교사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행정상 실수를 바로잡은 것일 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며 "합격자 바뀌치기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느 대학 보낼까 13일 광주시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2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학 진학 예상분석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中 선장 조타실 칼로 범행”

### 해경, 선원 9명 전원 영장 신청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은 13일 오후 6시경 이 사건의 가해자인 선장 청모(41)씨 등 중국인 선원 9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 청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선장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옹

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고(故) 이청호(41) 경사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원들은 중국어선 승선과 나포를 시도하는 대원들에게 삼, 족창 등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천해경은 선장 청씨가 조타실 안에 있던 칼로 이청호(41)경장과 이나훈(33)순경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부러진 칼날(길이 12cm)과 깨진 유리병(길이 30cm), 족창과 삼, 피문은 의복 등 증거품 23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해경은 고 이청호 경장에 대한 영결식을 14일 오전 10시 인천해경부두에서 해양경찰청장장(葬)으로 엄수할 예정이다.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연합뉴스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피선거권 법정 싸움

지난달 18일 연임에 성공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피선거권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도전했던 김병일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최 회장 선출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청구하는 소송을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선거일 90일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7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우석법인 재산 57억 市 귀속 전망

### 광주지법, 청산인 선정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청산인을 선정, 57억원 상당에 이르는 법인 재산의 광주시 귀속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9단독 장찬수 판사는 13일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청산인으로 법인 이사인 윤모씨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2일 지난 11월18일 우석

법인을 인가 취소했으나 이후 법인 측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부채 등을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 해산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 측이 이를 미뤘다"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위해 법인 청산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황당한 약사

### 전립선 환자에 혈압약 조제 벌금형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혈압약을 조제해 준 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석 판사는 13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혈압약을 조제해 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약사 임모(4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69세의 고령이지만 비교적 건강한데다 혈압약을 복용한 후 15일이 지나서야 어지럼증과 손떨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임씨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했

다고 볼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1월21일 전립선비대 증상이 있는 이모(69)씨에게 병원이 처방한 약 대신 혈압약 1개월분을 지어줘 이씨에게 어지럼증과 손떨림 등의 상태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씨의 어지럼증과 손떨림 증상은 장기간에 걸쳐 복용한 전립선 약 때문으로 고혈압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혈압약을 잘못 복용하기 전에 5개월가량 전립선약을 복용했음에도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술주정’ 할아버지 손자에 맞아 사망

### 목포경찰, 10대 영장 신청

목포경찰은 12일 자신의 할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A(17)군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목포시 산전동 할아버지(61) 집에서 할머니와 다툼을 벌이던 할아버지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술에 취해 할머니와 싸우던 할아버지를 때려다 때려 맞은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어머니가 "외출한 시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사고당시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조사해 A군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서부취재본부=고규식기자 yousou@

## 김 외상 판매 수협에 12억 손실

### 여수해경, 전 조합장 등 3명 입건

외상으로 판매한 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수협에 12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전·현 수협직원 3명이 입건됐다.

여수해경경찰은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김을 업체에 외상으로 판매하다 업체의 부도로 대금을 때려 수협에 12억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남지역 모 수협 전 조합장 A(67)씨 등 전·현 직원 3명을 13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내 수산물판매업체 3곳에 담보없이 100억원대의 김을 외상으로 판매해오다 최근 2곳의 부도로 12억5000만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07년 수협직원 13명이 어민들과 공모해 59억원어치의 면세유(65만 3000여ℓ)를 부정 유통한 혐의로 이들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과 변호사비용 등 52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나원침 (8459) 김장두



## 피준 청부폭행 혐의 무등산과 40대 자살

이운재(77) 피준 회장으로 부터 3억원을 받고 이 회사 이은욱(55)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를 받고 도피 행각을 벌여온 조지폭력배 오모(40)씨가 13일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등산과' 행동대원 오씨는 이날 새벽 3시경 용인시 보정동 아파트에서 욕실 샤워기에 바지 벨트로 목을 매 숨진 채 부인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흔적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청부폭력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씨가 경찰 수배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씨는 김포(34)씨 등 조지 폭력배 3명과 함께 지난 9월 3억원을 받는 대가로 귀가하던 이 전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 전국 돌며 사기행각 새벽 검문 달미

○상습사기 혐의 등 무려 9건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40대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경찰의 눈을 피해 3년간 도피행각을 벌여오다 갑작스런 경찰의 새벽 검문 검색에 달미.

○13일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2009년 6월 A제철소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정모(여·28)씨 등 6명에게 4770만원을 가로챈 등 전국을 돌며 사기행각을 해온 장모(42)씨를 이날 새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오락실에서 붙잡아 조사중.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첫 수배 이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생활해 왔으며 수배기간에도 전남과 경북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와 도박을 벌여 왔다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학편입 정원

#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 12월 19일